

고씨동굴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건국대학교 부교수 홍현철

김천전문대 전임강사 홍충렬

1. 서언

영월군은 江原道の 서남쪽에 위치하며 태백산맥의 서사면인 영서지방에 속한다. 철도교통은 태백선과 영동선으로 연결되며 서울에서 3시간 30분거리에 있다. 영동고속도로로는 새말에서 장평 평창을 지나 영월에 이르게 되며 수도권에서 3시간 정도로 도달할 수 있다. 즉 영월은 중원권인 충청도지방과 수도권인 경기지방 그리고 동해안지역인 영동지방등의 결절지역에 해당되는 교통요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태백산맥 서사면의 산간오지로 산세가 수려하고 한적한 비경인 관계로 조선시대 단종의 유배지로 정해졌던 고장이다.

영월읍 남동쪽 8km지점의 남한강지역의 하식애에 위치하고 있는 고씨동굴은 강을 건너야만 동굴입구에 도달하는 불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강을 건너는 낭만적 기분도 함께 맞볼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도 지니고 있다.

영월군 및 고씨동굴 주변지역의 인문사회 지리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결론

이상과 같이 고씨동굴의 주변지역인 영월군의 인문현상을 고찰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인구현상을 보면 1980년대에 들어서서 인구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한가구당 인구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도외지역으로의 진출현상인 이촌향도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로렌츠곡선의 변화로 부터 지역별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군내 인구가동도 읍으로의 이주현상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산업구조는 농가 한가구당 경지면적이 적을 뿐아니라, 농가구수 및 농가인구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2차산업은 광구수의 감소와 더불어 쇠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아직 석회석과 무연탄 등의 광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다섯째, 교통 측면에서는 철도교통과 국도급이상의 도로발달상태로 보아 강원도내 교통 요지를 점하고 있다.

여섯째, 문화재등 관광자원의 분포가 주변군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고씨굴이 접하는 관광산업은 영월군의 주요 관광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